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의 불안수준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Relationship of Parenting Stress and Anxiety in Children With ADHD

김세연

우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Se-Yun Kim(ksy8024@woosuk.ac.kr)

요약

본 연구는 ADHD 아동의 불안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간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DHD로 진단 받은 만 7~9세 아동과 M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불안설문지와 양육스트레스를 실시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불안은 한국형 소아 상태 및 특성 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0부를 방문 및 우편 배부하여, 112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ADHD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불안수준과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았으며, ADHD 아동은 성별, 연령, 유형에 따른 불안 수준과 양육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특성불안은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척도인 부모의 고통($r=.30$)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상태불안은 까다로운 아동($r=.30$)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임상현장의 전문가는 ADHD 아동의 불안수준이 일반아동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ADHD 아동의 불안증상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상담과 개입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부모양육스트레스 | 불안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parenting stress is related to anxiety in children with ADHD. The data were provided by 112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7 and 9. Forty nine children with a diagnosis of ADHD were recruited through 3 departments of child psychiatry and 63 normal children were recruited from elementary schools from the same city. The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was used to assess parenting stress and the Korean version of the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was used to assess the level of anxiety. The results show that children with ADHD have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anxiety and parenting stress than normal children.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ing stress and anxiety were found across gender, age, and the type of ADHD.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rait anxiety and parental distress and between state anxiety and difficult child. Parenting stress didn't significantly influence on anxiety in children with ADHD. Occupational therapist need to consider that the anxiety level of children with ADHD is different from normal children. It is needed for interventions for children with anxiety symptoms and also consultation and intervention for parents with parenting stress.

■ keyword : | Anxiety |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Parenting Stress |

I. 서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는 DSM-IV 진단 체계에 따라 주의력결핍(inattention), 충동성(impulsivity), 그리고 과잉행동(hyperactivity)을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으로[1] 소아청소년 정신과를 내원한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다[2]. ADHD 유병율은 미국의 경우 학령기 아동의 3~5%에서 12%까지 보고되며[3][4], 우리나라는 약 6.6~13.2%가 ADHD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불안장애는 아동기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정신과적 장애 중에 하나이며, 과잉격정과 일반적인 불안은 다른 불안장애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6]. 불안문제가 있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더 높은 중퇴율과 미숙한 문제해결 기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인다[7][8]. 더구나 아동기 불안은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지속된다[9]. 불안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의 50~70%는 추적조사 결과 2년 후에도 진단을 받았으며[10], 거의 절반은 진단 받은 8년 후에도 불안장애를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만성 불안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높은 학교 중퇴율과 실업률, 높은 의료비용, 알콜 중독, 자살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8].

불안장애는 우울, 파괴적 행동장애와 같은 행동적, 정서적 문제와 관련해 공존장애로 진단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12]. ADHD 아동의 약 25%가 불안장애를 공존장애로 가지고 있으며, 이는 품행장애나 적대적 반항장애와 같은 파괴적인 행동장애를 공존장애로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13-15]. 또한 ADHD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더 높은 불안수준을 가지고 있으며[16][17], 잦은 기분변화, 지나친 걱정, 주의변화의 어려움, 융통성 없는 행동 등 불안장애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18]. ADHD와 함께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ADHD만을 가지고 있는 아동보다 치료효과가 더 좋지 않으며[19-21], 기억력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

최근 불안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아동의 불안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부모-가족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23]. 예를 들어, 부부관계의 문제, 심각한 가족 질환, 부모의 정신과적 문제와 같은 더 부정적인 가족환경을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불안수준을 보였다[24]. 또한 부모와 아동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과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으로 인한 부모 양육스트레스는 아동기 불안과 관련된 부모-가족 요인이다[25].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사회적 부적응과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23][26]. 또한 부모의 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27] 아동의 불안, 우울,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현적, 내현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23]. 예를 들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아동의 불안수준이 증가하였다[28].

일반아동의 부모에 비해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더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29]. 특히 ADHD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키우기가 어렵고 부모에게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와 좌절감, 우울감등을 경험하게 한다고 여러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30-33]. 아동의 다루기 어려운 행동, 아동과의 상호작용의 어려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과,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사회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ADHD 아동의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25][30].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무기력감,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 부부갈등, 역기능적 가족관계, 분노나 우울 등을 경험할 수 있다[30].

불안장애가 있는 아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순응적이기 때문에 교사와 부모가 불안장애를 발견하기 어렵고, 대인관계와 학업수행에 심각한 역효과를 보이는 등 불안장애가 고착화 될 때까지 중재가 제공되지 않기도 한다[23]. 또한 아동의 불안장애를 다루는 것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방이 선호된다[34]. 따라서 ADHD 아동의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불안을 예방할 수 있으며,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학업적 기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ADHD 아동은 공존장애로 일부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아동의 불안장애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ADHD 아동의 불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ADHD 아동의 불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ADHD 아동에게서 보이는 불안장애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부분적으로 야기될 수 있다는 가설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아동과는 달리 ADHD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ADHD 아동에게 공존장애로 흔히 나타나는 불안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ADHD 아동이 일반아동과는 다른 불안수준과 양육스트레스가 있다는 전제조건을 확인한 후, ADHD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불안수준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상관관계가 있다면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이 아동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K시에 소재한 소아정신과 3곳에서 ADHD로 진단받은 만 7~9세 아동 49명과 같은 도시에 위치한 M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같은 연령대 일반아동 63명과 그들의 어머니였다. 연구자는 소아정신과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에게 연구 목적 및 질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질문지는 작업치료사를 통하여 아동과 어머니에게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일반 아동의 경우 M 초등학교 1, 2, 3학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담임교사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 및 어머니가 질문지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불안 질문지는 담임교사의 감독 하에 아동들에게 실시하였으며,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는 아동을 통해 어머니에게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연구자는 총 2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141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표기 내용이 부정확하게

나 끝까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29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12부의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2.1 한국형 소아 상태 및 특성 불안척도

아동의 불안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35]가 개발한 소아 상태 및 특성 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TAIC)를 사용하였다. 이는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불안평가척도를 소아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시킨 것으로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조수철과 최진숙[36]이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이 척도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태불안은 '현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하도록 되어있으며, 특성불안은 '평소에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체계는 각 문항당 0~3점 척도로 구성되어 각각 총점이 0점에서 60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성불안의 경우 39~42점이면 불안이 약간 높음, 43~46점은 상당히 높음, 47점 이상이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하며, 상태불안은 41~44점이 약간 높음, 45~48점은 상당히 높음, 49점 이상이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조수철과 최진숙[36]의 연구에서 상태불안 척도는 내적 일치도가 .88, 특성불안 척도는 내적 일치도가 .83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상태불안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75, 특성불안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81로 나타났다.

2.2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27]의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척도를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와 김혜진[37]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검사(Korean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보고 형식으로 만 1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의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를 부모의 고통,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그리고 까다로운 아동의 3개 하위척도로 측정한다. 각 하위척도는 각각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와 김해진[37]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ADHD 아동과 일반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그 중 ADHD 아동과 일반아동의 연령 비교는 t 검증을 사용해 비교하였다. 둘째, ADHD 아동과 일반 아동간에 양육스트레스 및 불안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ADHD 아동의 성별, 연령, ADHD 유형별로 양육스트레스 및 불안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과 ANOVA를 실시하였다. 넷째, ADHD 아동의 불안수준과 양육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DHD 아동과 일반아동간의 성별, 연령별 대상자 수의 차이로 인해 두 집단의 비교는 집단간 등분산 가정을 고려해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일반아동 63명, ADHD아동 49명으로 총 112명이었다. 일반아동의 평균연령은 100.06±9.94개월이었고 ADHD 아동의 평균 연령은 103.32±11.91개월이었다. 두 군의 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U=1143.000$, $p=.177$, 양방향). 일반아동의 성별은 비슷하였으나 ADHD 아동의 경우 남아가 훨씬 많았으며, ADHD 아동의 유형은 복합형이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12

특성		일반아동(N=63)	ADHD아동(N=49)
성별	남	31	37
	여	32	12
연령	7세	21	15
	8세	27	12
	9세	15	22
평균연령(개월)		100.06±9.94	103.32±11.91
유형	주의력결핍형		18
	과잉행동-충동형		8
	복합형		23

2. ADHD 아동과 일반아동의 불안수준과 양육스트레스 비교

ADHD 아동의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의 점수는 일반아동보다 높게 나타나 ADHD 아동의 불안수준이 일반아동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성불안($t=-2.02$, $p<.05$)과 상태불안($t=-3.09$, $p<.01$) 모두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양육스트레스의 하위척도인 부모의 고통,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과 스트레스 총점에서도 ADHD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나 ADHD 아동의 부모가 일반아동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두 집단간에 부모의 고통($t=-3.09$, $p<.01$),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t=-6.13$, $p<.01$), 까다로운 아동($t=-8.16$, $p<.01$), 스트레스 총점($t=-6.77$,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점수와 통계치는 [표 2]에 명시하였다.

표 2. 집단에 따른 불안수준과 양육스트레스

N=112

구분	집단	일반아동(N=63)	ADHD아동(N=49)	t
		점수(M±SD)	점수(M±SD)	
불안	특성불안	30.56±6.29	33.24±6.70	-2.02*
	상태불안	30.31±4.79	34.06±7.39	-3.09**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고통	26.72±7.27	31.04±6.95	-3.09**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21.24±5.29	28.10±6.11	-6.13**
	까다로운 아동	24.19±5.41	34.74±7.67	-8.16**
	스트레스 총점	72.15±15.09	93.88±17.60	-6.77**

* $p<.05$, ** $p<.01$

3. ADHD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수준 및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부모의 고통,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과 스트레스 총점은 ADHD 아동의 성별, 연령,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불안의 하위영역인 특성불안과 상태불안 또한 ADHD 아동의 성별, 연령,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남아의 양육스트레스 점수는 96.14점으로 여아의 92.20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8세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98.83점으로 다른 연령의 아동에 비해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으며, ADHD 유형별로는 과잉행동-충동형의 부모가 103.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다. 한편, 특성불안은 여아(36.3점), 상태불안은 남아(34.3점)가 높게 나타났으며, 8세 아동이 다른 아동에 비해 특성불안(33.6점)과 상태불안(36.6점)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과잉행동-충동형 아동이 특성불안(35.8점), 상태불안(37.0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수준을 보였다[표 3].

표 3. ADHD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수준 및 양육스트레스

N= 49

특성 구분	성별 M(SD)		p	연령 M(SD)			p	ADHD유형 M(SD)			p
	남	여		7세	8세	9세		IN	HI	CB	
	불안										
특성불안	32.24 (6.27)	36.30 (8.15)	.10	33.00 (6.85)	33.67 (7.17)	32.86 (6.93)	.95	31.72 (6.11)	35.86 (9.35)	33.36 (6.52)	.39
상태불안	34.35 (7.81)	33.50 (7.09)	.76	34.29 (8.61)	36.67 (8.85)	32.67 (5.94)	.35	34.50 (8.87)	37.00 (8.55)	33.00 (6.13)	.48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고통	31.92 (6.83)	30.00 (7.18)	.44	31.14 (6.30)	32.25 (7.74)	31.33 (7.04)	.91	29.72 (6.64)	33.00 (6.46)	32.50 (7.17)	.38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28.84 (5.50)	28.40 (6.79)	.83	27.36 (5.87)	30.00 (4.95)	28.95 (6.08)	.50	28.61 (5.40)	31.86 (4.28)	27.86 (6.22)	.28
까다로운 아동	35.43 (7.04)	33.80 (9.31)	.54	32.21 (7.85)	36.58 (4.44)	36.14 (8.37)	.23	33.89 (6.99)	38.14 (5.11)	35.09 (8.47)	.45
스트레스 총점	96.14 (16.17)	92.20 (20.68)	.52	90.57 (17.07)	98.83 (15.29)	96.43 (18.07)	.44	92.11 (16.40)	103.00 (13.24)	96.45 (18.46)	.37

IN: Inattention type(주의력결핍형), HI: Hyperactive-impulsive type(과잉행동-충동형), CB: Combined type(복합형), p<.05, * p<.01

4. 양육스트레스와 ADHD 아동의 불안간의 관계

양육스트레스와 ADHD 아동의 불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중 어머니의 고통이 높을수록 아동의 특성불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r=.30, p<.05$), 까다로운 아동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상태불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30, p<.05$)[표 4].

표 4. 양육스트레스와 ADHD 아동의 불안간의 관계

구분		1	2	3	4	5
양육스트레스	1. 부모의 고통					
	2.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42**				
	3. 까다로운 아동	.67**	.62**			
불안	4. 특성불안	.30*	.25	.25		
	5. 상태불안	.23	.24	.30*	.29	

p<.05, ** p<.01

5. 양육스트레스가 ADHD 아동의 불안수준에 미치는 영향

양육스트레스가 ADHD 아동의 불안수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검정결과 D-W 계수가 1.97~1.99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특성불안의 경우 .42~.62, 상태불안의 경우 .1 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가 특성불안의 경우 1.61~2.40, 상태불안의 경우 1.61~2.40으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각 변인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특성불안의 회귀모델은 유의하지 않았으며($F=1.81$), 양육스트레스가 ADHD 아동의 특성불안에 미친 영향력은 11%정도로 나타났다. 상태불안의 회귀모델 또한 유의하지 않았으며($F=1.50$), 양육스트레스가 ADHD 아동의 상태불안에 미친 영향력은 10%정도로 나타났다[표 5].

표 5. 양육스트레스가 ADHD 아동의 불안수준에 미치는 영향

집단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F
ADHD 아동	특성불안	부모의 고통	.24	.11	1.81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17		
		까다로운 아동	-.01		
	상태불안	부모의 고통	.06	.10	1.50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09		
		까다로운 아동	.21		

IV. 고찰

본 연구는 ADHD 아동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불안수준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아동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ADHD 아동의 불안수준은 일반아동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ADHD 아동이 일반아동과는 다른 불안 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38][39]. 또한 ADHD 아동 부모는 일반아동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ADHD 아동 어머니가 일반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 최지연[40], 서민정, 장은진, 정철호, 최상용[30], 김선화[41], Gupta[42]의 연구와 일치한다. ADHD 아동의 어머니는 부모역할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인 부모의 고통,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모와 부모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부모가 다루기 어려운 아동의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까다로운 아동 등 세 영역에서 모두 일반아동 어머니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아동의 특성인 부주의성, 충동성과 과잉행동성으로 인해 일반아동보다 어머니가 양육하는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30].

한편, ADHD 유형중 과잉행동-충동형의 어머니는 다른 유형의 아동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지만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서민정 등[30]의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을 주의력결핍과 복합형유

형으로 나누고 유형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복합형 아동의 어머니 집단이 주의력 결핍 우세형 아동의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가장 의미있는 변인이 아동이 보이는 증상의 심각성과 문제행동임을 보고한 Anastopolous[43]의 연구를 일부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신영[44]의 연구에서도 ADHD 아동의 과잉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더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를 보이고 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ADHD 증상이 심하고 문제행동이 두드러진 경우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증상이 심한 아동의 어머니에게는 아동의 문제에 대한 중재뿐 아니라, 어머니 본인에 대한 상담과 중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ADHD 심각성과 문제행동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도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ADHD 아동의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불안수준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Anderson[23], 이윤희[28]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본 연구결과는 일반아동뿐만 아니라 ADHD 아동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불안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의 특성불안은 양육스트레스 하위척도인 부모의 고통($r=.30, p<.05$)과, 상태불안은 까다로운 아동($r=.30, p<.05$)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가 ADHD 아동의 일생동안 변화되지 않는 불안 즉, 불안을 일으키는 경향에 대하여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특성불안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동의 타고난 특성불안과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불안과 관련이 있지만 아동의 불안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더 많은 ADHD 아동을 대상으로 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DHD 아동은 발달수준에 맞지 않거나 환경에 적대적인 영향을 보이는 부적응 행동을 나타낸다[45]. 아동은 어머니에게 더 도전적이고 어머니의 요구에 덜 순응하며, 더 적대적이고 부정적이며, 일반아동보다 더 도둑이나 주의를 요구한다[46]. 더구나 ADHD 아동의 어머니는 부정적이고 통제하는 양육행동을 보이며, 더 명령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며 더 꾸중을 하거나 아동의 사회적 주도성에 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47]. 위와 같이 다루기 힘든 아동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23][27]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과 같은 환경적 변화에 대하여 변화될 수 있는 상태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DHD 아동의 어머니가 갖는 스트레스는 아동의 불안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동의 불안증상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상담과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아동의 불안과 관련된 가능한 요인으로써 양육 스트레스를 확인함으로써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아동의 경우 설문지에 의존하여 ADHD 진단을 배제한 점이다. 향후, 직접 면담을 통해 일반아동을 선정하여 불안 및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K시에 위치한 소아정신과 3곳의 1~3학년생들을 임의 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타지역 및 초등학교 고학년생 등 모든 아동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지역 및 연령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자인 ADHD 아동의 성별, 연령 및 유형별로 아동이 고루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ADHD 아동의 성별, 연령과 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을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더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더 많은 ADHD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재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DHD의

증상수준과 아동의 문제행동 등의 변인을 추가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ADHD 아동의 불안수준과 양육스트레스간에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 ADHD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불안수준이 높고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성불안은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척도인 부모의 고통과, 상태불안은 까다로운 아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ADHD 아동을 다루는 전문가는 ADHD 아동의 불안수준이 일반아동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불안증상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상담과 개입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 [2] J. A. Staller, "Diagnostic profiles in outpatient child psychiatry," American J. of Orthopsychiatry, Vol.76, pp.98-102, 2006.
- [3] E. H. Harel and W. D. Brown,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Rhode Island: Associated psychosocial factors and medications used," Clinical Pediatric, Vol.43, pp.497-503, 2003.
- [4] T. J. Woodruff, D. A. Axelrad, A. D. Kyle, O. Nweke, G. G. Miller, and B. J. Hurley, "Trends in environmentally related childhood

- illnesses," *Pediatrics*, Vol.113, pp.1133-1140, 2004.
- [5] 양수진, 정성심, 홍성도,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chool-based mental health services in Seoul," *J.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45, No.1, pp.69-76, 2007.
- [6] T. H. Ollendick and N. J. King, "Empirically supported treatments for children with phobic and anxiety disorders: Current status," *J.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27, No.2, pp.156-167, 1998.
- [7] M. R. Dadds and P. M. Barrett, "Practitioner review: Psychological management of anxiety disorders in childhood," *J.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4, No.8, pp.999-1011, 2001.
- [8] R. M. Rapee, "The development and modification of temperamental risk for anxiety disorders: Prevention of a lifetime of anxiety?," *Biological Psychiatry*, Vol.52, No.10, pp.947-957, 2002.
- [9] S. Cartwright-Hatton, C. Roberts, P. Chitsabesan, C. Fothergill, and R. Harrington, "Systematic review of the efficacy of cognitive behaviour therapies for childhood and adolescent anxiety disorders," *British J. of Psychiatry*, Vol.43, No.4, pp.421-436, 2004.
- [10] J. McLoone, J. L. Hudson and R. M. Rapee, "Treating anxiety disorders in a school setting.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Vol.29, No.2, pp.219-242, 2006.
- [11] M. B. Keller, P. W. Lavori, J. Wunder, W. R. Beardslee, C. E. Schwartz, and J. Roth, "Chronic course of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31, No.4, pp.595-599, 1992.
- [12] T. H. Ollendick, N. J. King and P. Muris, "Fears and phobias in children: Phenomenology, epidemiology and etiology,"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Vol.7, No.3, pp.98-106, 2002.
- [13] H. B. Abikoff, "Observed classroom behavior of children with ADHD: Relationship to gender and comorbidity," *J. of Abnormal Psychology*, Vol.30, No.4, pp.1-20, 2002.
- [14] A. Angold, E. J. Costello, and A. Erkanli, "Comorbidity," *J.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40, No.1, pp.57-87, 1999.
- [15] P. S. Jensen, S. P. Hinshaw, H. C. Kraemer, N. Lenora, J. H. Newcorn, and H. B. Abikoff, "ADHD comorbidity findings from the MTA study: Comparing comorbid subgroups," *J.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40, No.2, pp.147-158, 2001.
- [16] 김세연, 박수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의 감각처리능력과 불안수준간의 관계",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19권, 제2호, pp.73-84, 2011.
- [17] S. J. Lane, S. Reynolds, and L. Thacker, "Sensory over-responsivity and ADHD: Differentiating using electrodermal responses, cortisol, and anxiety," *Front Integr Neurosci*, Vol.4, No.8, pp.1-11, 2010.
- [18] F. Levy, "Synaptic gating and ADHD: A biological theory of comorbidity of ADHD and anxiety," *Neuropsychopharmacology*, Vol.29, No.9, pp.1589-1596, 2004.
- [19] J. K. Buitelar, R. J. Van der Gaag, H. Swabb-Barneveld, and M. Kuiper, "Prediction of clinical response to methylphenidate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34, pp.1025-1032, 1995.
- [20] S. R. Pliszka, "Effect of anxiety on cognition, behavior and stimulant response in ADHD," *J.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28, pp.882-887, 1989.

- [21] E. Taylor, R. Schachar, G. Thorley, H. M. Wieselberg, B. Everitt, and M. Rutter, "Which boys respond to stimulant medication? A controlled trial of methylphenidate in boys with disruptive behavior," *Psychological Medicine*, Vol.17, pp.121-143, 1987.
- [22] R. Tannock, A. Ickowicz, and R. Schachar, "Differential effects of methylphenidate on working memory in ADHD children with and without comorbid anxiety," *J.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34, pp.886-899, 1995.
- [23] N. E. Anders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tress level and anxiety ratings of their children*, The University of Arizona, 2007.
- [24] R. L. Grover, G. S. Ginsburg, and N. Ialongo, "Childhood predictors of anxiety symptoms: A longitudinal study,"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Vol.36, No.2, pp.133-153, 2005.
- [25] R. Pianta, B. Egeland, and L. A. Stroufe, *Maternal stress and children's development: Prediction of school outcomes and identification of protective factors*. In J. E. Rolf, A. Masten, D. Cicchetti, K.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15-235, 1990.
- [26] R. Pianta and B. Egeland, "Life stress and parenting outcomes in a disadvantaged sample: Results of the mother-child Interaction project," *J.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19, No.4, pp.329-336, 1990.
- [27] R. R. Abidin,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 Inc., 1995.
- [28] 이윤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과 아동의 우울, 불안 및 안정 애착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29] 김미량, 이연주, 이정호,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여가제약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호, pp.366-375, 2009.
- [30] 서민정, 장은진, 정철호, 최상용,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효능감에 관한 연구-정서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어머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8권, 제1호, pp.69-81, 2003.
- [31] 안연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과 어머니의 우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32] P. A. Graziano, J. P. McNamara, G. R. Geffken, and A. Reid, "Severity of Children's ADHD symptoms and parenting stress: A multiple mediation model of self-regulation," *J.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39, pp.1573-2835, 2011.
- [33] M. J. Pimentel, S. Vieira-Santos, V. Santos, and M. C. Vale, "Mothers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stress, parental practices and child behaviour," *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ity Disorders*, Vol.3, No.1, pp.61-68, 2011.
- [34] C. L. Donovan and S. H. Spence, "Prevention of childhood anxiety disor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4, pp.509-531, 2000.
- [35] C. D. Spielberger,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1972.
- [36] 조수철, 최진숙, "한국형 소아의 상태·특성 불안 척도의 개발", *서울의대정신의학*, 제14권, 제3호, pp.150-157, 1989.
- [37]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 김혜진,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축약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13권, 제3호, pp.363-377, 2008.

[38] S. Reynolds and S. J. Lane, "Sensory overresponsivity and anxiety in children with ADHD," American J. of Occupational Therapy, Vol.63, No.4, pp.433-440, 2009.

[39] D. B. Schatz and A. L. Rostain, "ADHD with comorbid anxiety: A Review of the current literature," J. of Attention Disorders, Vol.10, No.2, pp.141-149, 2006.

[40] 최지연,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41] 김선화, "ADHD 유아의 기질 및 행동문제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42] V. B. Gupta, "Comparison of parenting stress in different development disabilities," J. of Developmental Physical disability, Vol.19, pp.417-425, 2007.

[43] A. D. Anastopolous, D. C. Guevremont, T. L. Shelton, and G. J. Dupaul,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20, No.5, pp.503-520, 1992.

[44] 이신영,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특성-고과잉 행동아동, 저과잉행동아동, 정상아동의 비교-,"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45] J. J. Haugaard, Child psychopathology, McGraw-Hill, New York, 2008.

[46] R A. Barkley, The social behavior of hyperactive children: developmental changes, drug effects and situational variation. In: McMahon R, Peters R(eds) Childhood disorders: behavioral-developmental approaches. Bruner/Mazel, New York, pp.218-243, 1985.

[47] L. Woodward, E. Taylor and L. Dowdney, "The parenting and family functioning of children with hyperactivity," J of Child

Psychology Psychiatry, Vol.39, No.2, pp.161-169, 1998.

저 자 소 개

김 세 연(Se-Yun Kim)

중신회원



- 200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활학과 작업치료학 전공 박사수료
- 2009년 3월 ~ 현재 : 우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 학교작업치료, 아동작업치료, 노인작업치료